

# 간호 대학생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

문인오\*\* · 박숙경\*\*\* · 김은경\*\*\*\*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은 매일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 획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관련 정보 및 지식과 의료 지식은 의료인의 점유물이었으나 현대 과학의 발전과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건강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Kim, Choi, & Jang, 2012; Ru & Ha, 2004). 또한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가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관련 정보 이용자의 의료이용행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건강관련 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중의 하나가 되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건강관련 정보의 양은 굉장히 방대하다(Kim, Kim, & Ru, 2010; Kim, Kim, & Shin, 2007, Song, 2006). Yoon, Park, Kim과 Kim (2005)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건강에 대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많이 선택하는 경로로 인터넷 검색이 병원상담보다 더 많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각종 건강관련 정보는 검색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누구라도 정보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많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Kim et al., 2012) 특히 건강관련 정보는 다른 정보와 달리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Park & Lee, 2011).

한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하는 이용자를 능동적 인터넷 정보 이용자들이라 하며 이들은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고,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이

\* 이 논문은 2014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 원광대학교 간호학과(교신전자 E-mail: oursky@wku.ac.kr)

\*\*\*\*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 Received: 20 April 2015 • Revised: 12 May 2015 • Accepted: 30 July 2015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Sook-Kyoung

Dep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 city, Jeonbuk, 54538 Korea Zip code : 54538

Tel: 82-63-850-6040 Fax: 82-63-850-6060 E-mail: yoursky@wku.ac.kr

용한다(Park & Lee, 2011). 그리고 이들이 건강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의도적으로 찾거나 얻는 적극적인 행동을 건강정보추구행동(Kim, 2006)이라 하며 건강정보추구행동은 능동적 인터넷 정보 이용자들이 본인 혹은 가족 중에 건강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의사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작된다(Park, & Lee, 2011).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신문방송학 등의 영역에서 건강정보추구행동에 따른 건강정보 이용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질병에 대한 태도와 건강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있으며,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이나 예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높을수록 건강정보추구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Kim, 2006)가 있다. 이렇게 건강정보추구행동이라는 개념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찾는 행위로서 간호학에서는 아직 다루지 않은 개념이나 개인의 책임과 능동적인 행동이 강조되는 건강증진행위실천에 건강정보추구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전 국민 대상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의하면 국내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 비율은 초, 중, 고등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인터넷 이용 용도는 주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이 92.3%로 보고되었고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19.8시간으로 전체 국민 평균 대비 3.5시간 길게 나타났다(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2). 이처럼 대학생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습득이 단순 정보에서 전문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정보획득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터넷이 자리 잡고 있어 일상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상화되고 있고 건강 관련 문제가 있을 때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증진행위실천은 개인의 안녕수준, 자아실현, 개인의 만족감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스스로 시작하는 다면적인 형태의 인식과 행동(Cho et al., 2012)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개인책임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학생의 건강증진 관련 연구는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영향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유의성, 사회적 지지가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

고 교양과목으로 제공된 건강교육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보고되었다(Cho, Lee, & Cui, 2010; Cho, Lee, Ham, & Kim, 2006; Han, 2005; Lee, Kim, Cho, Ahn, & Kim, 2014; Min & Paek, 2007). 그리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실생활에서의 건강증진행위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Laflamme, 2003; Park & Lee, 2011; Rains, 2007)는 있으나 능동적 인터넷 정보 이용자로 대표되는 대학생들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실생활에서의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간호 대학생은 건강문제와 관리에 대해 배우고 공부하며 미래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비 전문인으로서 이들의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영향요인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인터넷상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을 조사하고, 이 추구행동이 실생활에서의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도에 소재하는 4년제 2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표본수 산출방법인 G-power program 3.1.2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는 회귀분석의 중간수준인 .15, 독립변수 10개로 하여 118명의 최소 표본수가 결정되었고, 탈락율을 고려하여 160명 이상을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최종 대상자수는 226명이다.

## 3. 연구 도구

### 1) 건강정보추구행동

건강정보추구행동이란 건강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를 의도적으로 찾거나 얻는 적극적인 행동(Kim 2006)으로 Kim (2006)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건강정보추구에 따른 인지적, 행동적 변화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안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로서 건강관련 정보인식 7문항, 건강관련 정보이용 계기 및 태도 17문항, 건강관련 정보이용 의도 6문항으로 총 30문항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아주 그렇다' 5점으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정보추구행동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Kim (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 2) 건강증진행위실천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측정도구는 Walker, Sechrist와 Pender (1995)가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HPLP-II)를 Seo (2001)가 변안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건강책임 8문항, 신체활동 8문항, 영양섭취 9문항, 영적성장 9문항, 대인관계 8문항, 스트레스관리 8문항으로 총 50문항 6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안한다'에 1점, '항상 한다'에 4점을 주어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eo (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를 묻는 '현재 당신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인 '당신은 건강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사이트를 이용하십니까?', '검색한 정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및 '인터넷 상의 건강관련 정보의 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건강정보를 몇 회 검색하십니까?', '주로 검색하는 건강관련 정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로 Cho (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1)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4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간호학과 연구 위원들과 학과장에게 연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여 승인을 얻었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익명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한 설문지는 연구보조원이 회수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최초 240부를 배부하여 229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94.1%였고 그 중 무응답, 부적절한 답변 등 자료 활용이 어려운 3부를 제외한 총 226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의 서술통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다섯째,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정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의 크기를 순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Song, 2012)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 관련 특성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2단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로 종속변수인 건강증진행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 관련 특성변수를 1단계(model 1)에 투입하였고, 변수 중 불연속 변수는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2단계(model 2)에서는 건강정보추구행동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 관련 특성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건강정보추구행동 변수가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인지를 확인하고 회귀모형에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R^2$ 가 얼마나 유의하게 증가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정한 결과,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은 건강정보추구행동은 1.98, 건강증진행위실천은 2.06으로 기준치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귀모형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2~1.42로 기준치인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702~.902로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성이 206명

(91.2%)이었고, 평균 연령은 20.9(±2.82)세이며 20세 이하가 98명(43.4%), 21~23세가 108명(47.8%), 24세 이상이 20명(8.8%)이었다. 학년은 4학년이 66명(29.2%), 1학년이 63명(27.9%), 다음이 3학년이 53명(23.5%), 2학년이 44명(19.5%)의 순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가 119명(52.7%)이었고, '보통이다'가 107명(47.3%)이었다.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에서, 건강정보 검색사이트는 개인 블로그와 카페가 145명(64.2%), 링크서비스가 59명(26.1%), 병원과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22명(9.7%)이었다. 검색사이트 선택기준은 '자료의 신뢰성'을 기준으로 하는 대상자가 129명(57.1%)이었고, '검색된 순서'로 58명(25.7%)이었으며 다음으로 '자료를 올린 날짜' 23명(10.1%)와 '올린 사람의 직업' 16명(7.1%)의 순이었다. 정보의 양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가 107명(47.4%), '보통이다'가 90명(39.8%)이었으며, '부족하다'가 29명(12.8%)이었으며, 검색횟수는 주당 1회 이하가 147명(65.1%), 2~3회가 60명(26.5%), 4~5회가 19명(8.4%)이었고, 검색주제로는 '질병관련'이 64명(28.3%), '운동관련'이 70명(31.0%), '영양관련'이 40명(17.7%), '비만관련'이 30명(13.3%), '스트레스 해소법'이 22명(9.7%)이었다(Table 1).

#### 2.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 및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점수 분포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은 5점 만점 중 평균 3.16(±0.43)점이었고,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전체 평균은 2.35(±0.42)점이었으며 하부요인별로는 대인관계 2.88(±0.52)점, 영적성장 2.61(±0.59)점, 영양습관 2.17(±0.53)점, 스트레스관리 2.17(±0.51)점, 신체활동 2.15(±0.69)점, 건강책임 2.09(±0.46)점으로 대인관계영역이 가장 높았다(Table 2).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추구행동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3.20(±0.34)점으로 건강정보추구행동의 점수가 높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6)

Characteristic	Category	n(%)	Mean±SD
Gender	Male	20(8.8)	
	Female	206(91.2)	
Age(yr)	≤ 20	98(43.4)	20.9± 2.82
	21-23	108(47.8)	
	≥ 24	20(8.8)	
Grade	1st	63(27.9)	
	2nd	44(19.5)	
	3rd	53(23.5)	
	4th	66(29.2)	
Self-rated health status	Healthy	119(52.7)	
	Moderate	107(47.3)	
Type of web-sites to get health information	Blog, cafe (private)	145(64.2)	
	Link service	59(26.1)	
	Home page (hospital, government)	22(9.7)	
Selection criteria of health information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129(57.1)	
	Retrieved order	58(25.7)	
	Date of created information	23(10.1)	
	Occupation of the person who created the material	16(7.1)	
The amount of information	Sufficiency	107(47.4)	
	Moderate	90(39.8)	
	Not enough	29(12.8)	
Frequency of information search (for week)	≤ 1	147(65.1)	
	2-3	60(26.5)	
	4-5	19(8.4)	
The type of health information	Disease	64(28.3)	
	Exercise	70(31.0)	
	Nutrition	40(17.7)	
	Obesity	30(13.3)	
	Stress management	22(9.7)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N=226)

Variables	Mean±SD	Min	Max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3.16±0.43	1.97	3.97
Health promotion behavior	2.35±0.42	1.21	4.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2.88±0.52	1.63	4.00
Spiritual growth	2.61±0.59	1.22	4.00
Nutritional habits	2.17±0.53	1.00	3.33
Stress management	2.17±0.51	1.13	3.63
Physical activity	2.15±0.69	1.00	4.00
Health responsibility	2.09±0.46	1.00	3.63

고( $t=2.28, p=.024$ ), 정보선택의 기준에서 자료올린 사람의 직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3.35(\pm 0.34)$  점으로 높았으며( $F=6.94, p<.001$ ), 정보검색횟수에 서는 주당 2~3회 검색하는 경우가  $3.34(\pm 0.28)$  점

로 높게 나타났다( $F=11.25, p<.001$ ).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남자의 경우가  $2.43(\pm 0.34)$  점으로 여자의  $2.21(\pm 0.38)$  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

Table 3. Differences in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6)

Characteristic	Category	HISB <sup>+</sup> (Mean±SD)	t or F (p)	HPB <sup>+</su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3.16±0.39	0.24	2.43±0.34	7.79
	Female	3.14±0.37	(.811)	2.21±0.38	(.005)
Age (yr) <sup>*</sup>	≤ 20 <sup>a</sup>	3.10±0.36	2.39 (.094)	2.29±0.36	4.26
	21-23 <sup>b</sup>	3.20±0.37		2.40±0.39	(.015)
	≥ 24 <sup>c</sup>	3.04±0.41		2.14±0.32	a,c<b
Grade <sup>*</sup>	1st <sup>a</sup>	3.10±0.40	2.43 (.066)	2.34±0.40	4.40 (.005)
	2nd <sup>b</sup>	3.10±0.37		2.17±0.37	
	3rd <sup>c</sup>	3.20±0.40		2.31±0.41	
	4th <sup>d</sup>	3.20±0.40		2.45±0.29	
a,b,c<d					
Self-related health status	Healthy	3.20±0.34	2.28	2.43±0.35	4.12
	Moderate	3.10±0.40	(.024)	2.21±0.38	(.001)
Type of web-sites to get health information	Blog, cafe(private) <sup>a</sup>	3.11±0.36	0.85 (.469)	2.29±0.36	1.77 (.154)
	Link service <sup>b</sup>	3.14±0.43		2.32±0.46	
	Home page <sup>c</sup> (hospital, government)	3.22±0.37		2.45±0.40	
Selection criteria of health information <sup>*</sup>	Retrieved order <sup>a</sup>	3.03±0.33	6.94 (.001)	2.26±0.35	3.78 (.011)
	Occupation of the person who created the material <sup>b</sup>	3.35±0.34		2.38±0.36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sup>c</sup>	3.20±0.37		2.39±0.38	
	Date of created information <sup>d</sup>	2.93±0.39		2.12±0.38	
		a,d<c<b		a,d<b,c	
The amount of information	Sufficiency <sup>a</sup>	3.78±0.36	0.44 (.777)	3.17±0.51	2.27 (.061)
	Moderate <sup>b</sup>	3.83±0.41		3.37±0.63	
	Not enough <sup>c</sup>	3.76±0.42		3.27±0.48	
Frequency of information search (for week) <sup>*</sup>	≤1 <sup>a</sup>	3.10±0.38	11.25 (.001)	2.27±0.36	4.98 (.008)
	2-3 <sup>b</sup>	3.34±0.28		2.45±0.41	
	4-5 <sup>c</sup>	3.20±0.30		2.43±0.27	
		a,c<b		a<c<b	
	Disease <sup>a</sup>	3.07±0.37	2.38 (.053)	2.38±0.39	5.47 (.046)
	Exercise <sup>b</sup>	3.23±0.41		2.42±0.35	
	Nutrition <sup>c</sup>	3.04±0.34		2.23±0.42	
	Obesity <sup>d</sup>	3.24±0.34		2.28±0.34	
	Stress management <sup>e</sup>	3.12±0.33		2.20±0.29	
c,d,e<a<b					

\* Scheffé test

<sup>+</sup> HISB: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sup>+</sup>HPB: Health Promotion Behavior

타났고(t=7.79, p=.005), 다음으로 연령에서 21세 ~23세의 경우 2.40(±0.39)점으로 24세 이상의 2.14(±0.32)점이나 20세미만의 2.29(±0.3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4.26, p=.015), 학년에서는 4학년이 2.45(±0.29)점으로 1학년의 2.34(±0.40)점, 2학

년의 2.17(±0.37)점, 3학년의 2.31(±0.4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4.40, p=.005).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할 경우가 2.43(±0.35)점으로 높았으며(t=4.12, p<.001), 정보 선택기준에서는 자료의 신뢰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의 2.39(±0.38)점과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Health Promotion Behavior (N=226)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r	p
Health promotion behavior	.526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527	<.001
Spiritual growth	.427	<.001
Nutritional habits	.402	<.001
Stress management	.378	<.001
Physical activity	.344	<.001
Health responsibility	.338	<.001

자료를 올린 사람의 직업을 기준으로 하는 2.38 ( $\pm 0.36$ )점의 경우가 검색된 순서대로 선택하는 경우의 2.26 ( $\pm 0.35$ )점과 자료를 올린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2.12 ( $\pm 0.38$ )점보다 건강증진행위실천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F=3.78, p=.011$ ), 건강정보 검색횟수에서는 주당 검색횟수가 2~3회인 경우의 2.45 ( $\pm 0.41$ )점, 4~5회 인 경우의 2.43 ( $\pm 0.27$ )점, 1회 이하인 경우의 2.27 ( $\pm 0.36$ )점의 순서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 $F=4.98, p=.008$ ), 검색주제는 운동관련 정보를 찾는 경우가 2.42 ( $\pm 0.35$ )점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F=5.47, p=.046$ ). (Table 3)

#### 4.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과의 상관관계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526, p<.001$ ). 각 하위요인별 상관관계에서도 건강정보추구행동은 대인관계( $r=.527, p<.001$ ), 영적성장  $r=.427, p<.001$ ), 영양습관( $r=.402, p<.001$ ), 스트레스관리 ( $r=.378, p<.001$ ), 신체활동 ( $r=.344, p<.001$ ), 건강책임( $r=.338, p<.001$ )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 5.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로 종속변수인 건강증진행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 관련 특성변수를 1단계(model 1)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 $\beta=-.176, p=.003$ ), 건강정보선택기준이 자료를 올린 사람의 직업이 선택기준인 경우( $\beta=.637, p=.005$ )와 자료의 신뢰성이 선택의 기준인 경우( $\beta=.573, p=.004$ ) 그리고 검색 횟수가 주당 2~3회인 경우 ( $\beta=-.153, p=.020$ )에 건강증진행위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단계 모델의 설명력은 17.6% ( $F=10.96, p<.001$ )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로 건강정보추구행동을 회귀모형에 추가로 포함하였을 때, 건강정보선택기준이 자료를 올린 사람의 직업이 선택기준인 경우 ( $\beta=.158, p=.019$ )와 건강정보추구행동( $\beta=.424, p=.023$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정보추구행동은 건강증진행위실천을 전체변량의 18.1%를 추가로 설명하여 2단계 모델의 전체 설명력은 35.7% ( $F=21.55, p<.001$ )로 나타났다(Table 5).

## IV. 논 의

인터넷상에서 건강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인터넷 사용 경험자의 84.9%를 차지하여 건강관리와 질병관리에 인터넷의 활용이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Kim et al, 2012). 특히 인터넷과 SNS에 익숙해져 있는 대학생의 경우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를 찾는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능동적 정보 이용자로서 적극적 건강정보를 찾는 행위인 건강정보추구행동의 수준을 파악하고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실생활에서의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실시되었다.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16 ( $\pm 0.43$ )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Table 5.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and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N=226)

Variables	Model 1			Model 2			
	$\beta$ (B)	t	p	$\beta$ (B)	t	p	
Constant	(1.005)	4.994	<.001	(1.114)	4.875	<.001	
Age*	21-23	-.074	-1.216	.225	-.971	-2.14	.053
	≥ 24	.381	1.942	.311	-.223	-.46	.649
Health status (Healthy) <sup>†</sup>		-.176	-3.003	.003	-.860	-1.63	.104
Selection criteria <sup>‡</sup>	Occupation of the person who created the material	.637	2.845	.005	.158	2.69	.019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573	2.871	.004	.129	2.10	.126
	date of created information	-.088	-.047	.398	.034	.74	.462
Frequency of information search <sup>§</sup> (for week)	2-3	-.153	-2.348	.020	.066	1.11	.270
	4-5	-.147	-2.282	.023	-.064	-1.03	.302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424	7.012	.023	
F (p)		10.96 (<.001)			21.55 (<.001)		
Adj. R <sup>2</sup>		.176			.357		
R <sup>2</sup> Change		.176			.181		

Dummy variables of reference group: \* ≤ 20; † Moderate; ‡ Retrieved order; § ≤ 1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Park과 Lee (2011)의 연구에서 보고한 5점 환산 평균점수 2.71 점보다 높았다. 이는 대학생들이 인터넷과 SNS의 활용력이 일반 성인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건강증진행위실천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서 2.35(±0.42)점이었으며 각 하위개념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2.88(±0.52)점, 영적성장 2.61(±0.59)점, 영양습관 2.17(±0.53)점, 스트레스관리 2.17(±0.51)점, 신체활동 2.15(±0.69)점, 건강책임 2.09(±0.46)점의 순이었다. 이는 Cho 등(2010)이 중국과 한국의 간호대학 1,3학년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전체 평균이 2.46(±0.36)점보다 낮았으며 하위개념별 순서는 대인관계 2.95(±0.47)점, 영적성장 2.86(±0.55)점, 스트레스관리 2.39(±0.47)점, 영양습관 2.38(±0.48)점, 신체활동 1.83(±0.49)점, 건강책임 2.25(±0.56)점으로 유사하였고, Lee 등(2014)의 2.27점보다는 높았다. 이는 간호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2011)의 4점 환산점수인

2.88점보다는 낮았고 Kim, Oh, Hyong과 Cho 등 (2008)의 2.58점보다 낮았다. 간호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점수가 일반 대학생의 점수보다 낮은 이유는 간호학과의 특성상 과중한 실습 스트레스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 나타나는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건강증진행위실천을 잘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Kim, Jung과 Lee (2002)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이며, 하위 영역에서 신체활동과 건강책임의 점수가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Han (2005)의 연구에서 일반 대학생들이 신체활동과 건강책임영역의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대인관계 증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신체활동과 건강책임의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일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실천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wang (2008)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Hong (2012)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건강증진행위실천 점수가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결과와는 대조를 이루었다. 즉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행



위실천에 대한 연구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성별의 어떠한 차이가 건강증진행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건강증진행위실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연령과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Sung (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Cho 등(2006), Hong (201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한 그룹의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Lee 등 (2014)의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Hong (2012)의 연구에서 입원한 경험이 있고 본인의 건강에 자신이 없다고 한 대상자들이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점수가 높다고 보고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검색된 자료를 선택할 때 '스스로 판단해서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그룹과 주당 검색횟수가 2~3회인 경우에 건강증진행위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차이에 대해 파악한 연구가 없어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지식체가 축적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검색주제에서 '운동관련' 정보를 찾는 그룹이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건강증진을 위해 인터넷 상에서 운동관련 정보를 찾는 경우가 40% 이상이라는 Kim (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 대상자가 운동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r=.526, p<.001$ ), 각 하위개념별로 살펴보면 건강책임( $r=.527, p<.001$ ), 대인관계( $r=.427, p<.001$ ), 신체활동( $r=.402, p<.001$ ), 영양섭취( $r=.378, p<.001$ ), 영적성장( $r=.344, p<.001$ ), 스트레스관리( $r=.338, p<.001$ )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대학생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한 Laflamme (2003), Rains (2007), Park과 Lee (201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인터넷상에

서 건강정보추구행동을 잘 할수록 실생활에서의 건강증진행위실천도 잘할 것으로 생각되며, 간호 대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인터넷과 SNS에서의 건강정보에 대해 적절히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분석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 관련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Model 1에서는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대한 설명력이 17.6%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 관련 특성을 통제한 Model 2에서는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을 18.1% 추가로 설명하여 총 35.7%의 설명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은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정보선택기준 중 자료를 올린 사람의 직업, 자료의 신뢰성, 주당 2~3회의 검색 횟수였다. 이는 압 관련 정보추구 유무가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실천과 유사개념인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중 하나가 주관적 건강상태라고 한 Hong (2013)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Hong (2013)과 Sung (2001)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증진행위실천과 낮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상반되고 있어 추후 연구를 통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 관련 특성에서 검색정보의 선택은 건강정보를 올린 사람의 직업과 자료의 신뢰성을 기준으로 하며 주당 2~3회의 검색 횟수를 가지는 대상자가 건강증진행위실천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검색된 건강정보를 선택할 때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고, 축적된 지식체가 아직 미흡하여 건강정보추구행동의 연구가 시작된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추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체를 통한 건강정보 탐색과 암검진 예방행동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Hong (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인터넷과 같은 능동적 매체를 통한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Dutta-Bergman (2004)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과거에는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사람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건강정보 습득이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에 대한 태도, 건강에 대한 지각과 건강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찾는 행위인 건강정보추구행동에 대한 연구가 시작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간호학에서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개인의 책임과 능동적인 행동이 강조되는 건강증진행위실천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더 많이 축적된 다음에 활발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정보추구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건강정보추구행동을 할 때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건강증진행위실천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므로 간호 대학생들을 위해 인터넷상에서의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대학생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16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행위실천은 4점 만점에서 2.35(±0.42)점이었으며 각 하부요인별로는 대인관계 2.88(±0.52)점, 영적성장 2.61(±0.59)점, 영양습관 2.17(±0.53)점, 스트레스관리 2.17(±0.51)점, 신체활동 2.15(±0.69)점, 건강책임 2.09(±0.46)점으로 대인관계영역이 가장 높았다. 둘째, 건강증진행위실천은 성별, 연령,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자료선택의 기준, 주당검색횟수,

검색주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셋째,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 관련 특성은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대한 설명력이 17.6%로 나타났고, 건강정보추구행동은 건강증진행위실천을 18.1%를 추가로 설명하여 총 35.7%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간호 대학생들의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실생활에서의 건강증진행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건강정보소비자이며 동시에 능동적 정보이용자들에게 SNS,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행위인 건강정보추구행동은 이제 낮은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되며, 시간상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앞으로 건강정보추구행동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매체를 통한 건강정보가 건강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또한 간호 대학생은 미래의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자이며 동시에 대상자들에게 건강과 관련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는 인력이므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매체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신뢰도가 높은 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간호 대학생들의 역량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건강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추구행동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J도 소재 2개 4년제 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환경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다른 대상자에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어 향후 전국에 있는 간호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Cho, H., Lee, S. J., & Cui, R. S. (2010). Comparison of health promotion lifestyles and self-esteem of Korean and Chines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nursing*, 19(1), 22-33. <http://dx.doi.org/10.12934/jkpmhn.2010.19.1.22>
- Cho, K. W. (2006). An investigation of internet usage and health information acquisition by internet of domestic adults.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4(2), 721-724.
- Cho, S. Y., Lee, I. S., Ham, Y. L., & Kim, J. H. (2006). Factors leading to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the students in a nursing school of a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12(1), 78-85.
- Cho, Y. S., Park, J., Ryu, S. Y., Kang, M. G., Min, S., Kim, H. S., Ha, Y. J., & Kim, E. A. (2012).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health promotion life style on job satisfaction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1), 5-15. <http://dx.doi.org/10.59322/JKPHN.2012.26.1.005>
- Dutta-Bergman, M. (2004). A descriptive narrative of health eating: A social marketing approach using psychographics in conjunction with interpersonal, community, mass media and new media activities. *Health Marketing Quarterly*, 20, 81-101. [http://dx.doi.org/10.1300/j026v20n03\\_06](http://dx.doi.org/10.1300/j026v20n03_06)
- Han, K. S. (2005). Self 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ymptoms of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35(3), 585-592.
- Hong, S. H.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19(1), 78-86.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1.78>
- Hong, S. M. (2013). The effects of cancer-related information search from media as communication cues on health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1), 76-86. <http://dx.doi.org/10.111111/jkana.2013.19.1.76>
- Hwang, H. G. (2008).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health promotion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nny University, Daegu.
- Kim, B. C., Choi, M. I., & Jang G. Y. (2012). Perceptual differences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use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Empirical test of co-orientation model.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3(5), 63-84.
- Kim, C. W. (2006). *A study on health communication through interne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G. S., Kim, Y. R., & Ru. C. W. (2010). Health behavior stage and usage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35(2), 177-193.
- Kim, H. S., Oh, E. G., Hyong, H. K., & Cho, E. S. (2008).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lifestyl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3), 506-520. <http://jkachn.org/DOIx.php?id=10.12799/jkachn.2008.19.3.506>
- Kim, J. E., Kim, S. H., & Shin, Y. J. (2007). Survey on the physicians views of the effects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on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Journal of Cyber*

- Communication*, 21, 279-301.
- Kim, S. J. (2012). An exploratory study of undergraduate students health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behaviors in social medi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239-260.
- Kim, Y. H., Jung, M. S., & Lee, J. A. (2002). Study an health promoting behavior determina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Health Nursing*, 16(2), 286-303.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2). *2012 Internet use survey*. Seoul: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http://isis.kisa.or.kr/board/index.jsp?pageId=040000&bbsId=7&itemId=792&pageIndex=2>
- Laflamme, D. (2003). *Online health information-seeking health focus of control and health literacy among low-income internet users in east Baltimo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Baltimore, U.S.A.
- Lee, E. S. (2011).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Journal of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6), 47-56.
- Lee, M. S., Kim, K. S., Cho, M. K., Ahn, J. W., & Kim, S. O. (2014) Study of stres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and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quality of life. *Journal of Muscle Joint Health*, 21(2), 125-134. <http://dx.doi.org/10.5953/JMJH.2014.21.2.123>
- Min, S. Y. & Paek, K. S. (2007). The effects of a health education program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self-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8(4), 245-256.
- Park, S. H. & Lee, S. Y. (2011). Exploring categories of health information users on the basis of illness attitude and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5(4), 105 -134.
- Rains, S. (2007). Perception of traditional information sources and use of the world wide web to seek health information: findings from the health information national trends survey.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2, 667-680.
- Ru, C. W. & Ha, Y. J. (2004). Usage of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ealth and Welfare Forum*, 97, 71-87.
- Seo, H. M. (2001). *Construction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model in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Song, J. J. (2012). SPSS/AMOS statistical methods necessary for writing papers(2nd). PaJu: 21C Book.
- Song, T. M. (2006). Health information web-site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Forum*, 3, 61-67.
- Sung, M. H. (2001). Determinant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7(3), 317-330.
- Walker, S. N., Sechrist, K. R., & Pender, N. J. (1995).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Omaha: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 Yoon, Y. M., Park, S. K., Kim, S. D., & Kim, H. S. (2005). *Changes in IT development and daily life*. Seoul: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Influence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up>\*</sup>

**Moon, Inn Oh** (Dep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Park, Sook Kyoung** (Dep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Kim, Eun-Gyeong** (Dept. of Nursing, Gun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Methods:** The study design was a descriptive survey an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40 nursing students who have studied in nursing colleges located in “J” provinc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è test,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In Model I, general characteristics influenced of 17.6%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factors. Health status, selection criteria and frequency of information search were statistically useful as influencing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factors. In addition, in model II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fluenced of 18.1%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factors.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proved the influence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 Health information, Health promotions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in 2014.*